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5. 2. 5.(수)	담당 부서	연구기획실
	담당자	공보판사 고대석(☏ 031-920-3548)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사법정책연구원은 2024. 12. 31.「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함(연구책임자: 권형관 연구위원/판사)

▣ **연구의 의의**

●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 즉, 이지리드(Easy-Read)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제공하는 방법 등을 국내 최초로 연구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함

▪ 이지리드(Easy-Read)란, 간명한 글과 그 의미 전달을 보조하는 삽화 등 이미지로 구성된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함

▪ 이지리드는 정보 전부의 전달이 아닌 핵심적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함

▣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등**

●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문자화된 자료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인 등이 이지리드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서('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받으면, 그 내용을 더 충실하게 이해 可

● 이지리드 판결서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인(聾人), 아동·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전반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도움될 수 있고, 장기

적으로는 고령자 등에게도 유용할 수 있음

●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이지리드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 그러나 그동안 이지리드 판결서를 작성 및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 활성화에 현실적 한계 有

▣ 연구의 주요 내용

▪ 이지리드 판결서의 개념, 구성요소, 필요성, 법적 근거, 적용대상 등을 개관

▪ 우리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법 관련 이지리드 활용 사례 등과 국내의 이지리드 활용 사례 등을 분석

▪ 이지리드 판결서의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구성형태, 작성 주체 및 제공 시기, 작성 절차, 작성 방법) 등을 연구

▪ 이지리드 판결서의 구체적 작성례('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를 작성 및 제시. 특히 보고서 별책 부록 1. 내지 4.에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 총 14건(형사 7건, 민사 3건, 가사 3건, 행정 1건)을 개발하여 수록(발달장애인 12인, 이지리드 제작 전문가 2인, 장애 활동가 등 9인, 전·현직 법관 8인 등의 다양한 감수의견을 반영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유용하도록 작성)

▪ 이후 총 40명(발달장애인, 농인, 초등학생)에 대한 충실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지리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도 상승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

▪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관련 대법원 예규 제정안을 제시하고, 법관이 이지리드 전문가로부터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업무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참고: 법원행정처의 관련 정책연구용역**

-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지리드 판결서에 활용할 삽화 등 시각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 연구와 병행적으로 2023. 4.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과제담당관: 권형관 연구위원)를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채택하였음
- 이에 이지리드 제작 전문 기업인 소소한소통이 이지리드 판결서에 사용할 만한 삽화 661개를 개발 → 2025. 2. 위 삽화 이미지 파일 및 그 목록 등을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제공함(법원 내 코트넷 '지식광장' 게시판에 업로드)
-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을 기초로 위 정책연구용역에서 개발할 삽화의 내용과 종류 등을 선정 → 위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삽화를 본 보고서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 개발에 사용
- 병행 진행으로 시너지 효과: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삽화 이미지 파일을 사전에 확보하여 널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에 구체적 작성례를 제시 → 추후 본 보고서와 함께 위 삽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지리드 판결서를 손쉽게 작성 →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활성화 기대 可

▣ **본 보고서 발간에 대한 장애계의 반응**

- **한국피플퍼스트**(발달장애인단체) - 전문은 별지 1
  - 이 보고서는,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정부 기관이 귀 기울여 듣고, 발달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므로 하나의 책자 이상의 중요한 의미
  - 이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등이 평등하게 법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진전이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지리드 판결서를 통하여 사법제도 내에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사법부가 발달장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들여 이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함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문은 별지 2

-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법절차의 결정을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연구는 장애인의 인권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판결서는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사회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이 연구는 향후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전문은 별지 3

- 이 보고서의 발간을 환영하고,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제공에 이어 법원에서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함에 감사를 표함
- 이 연구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전반의 사법접근권 보장에 기여할 것임
- 법원은 최근 장애인의 국가배상청구 사건(2022다289051)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법원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함

● 그 외에도 한국장애총연맹 등 장애단체에서 본 보고서 발간에 대한 환영논평을 2/6(목) 발표할 예정

▣ **전망**

● 본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 방법 등을 연구한 것으로서, ① 사법부가 장애인 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② 향후 법관의 이지리드 판결

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는 결국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끝.

별지1

[한국피플퍼스트]의 입장

이런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지리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서류와 자료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만들어져 왔기에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가의 정책과 행정의 내용들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외쳐 왔습니다.

재작년부터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락을 받아 발달장애인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왜 이해하기 쉬운 자료가 필요한지, 판결서를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들과 판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저 책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회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정부 기관이 귀 기울여 듣고,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나라들의 이지리드 자료를 검토하여 각 국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내용들을 연구보고서에 실어 이해하기 쉬운 자료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이지리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곳에서 이 자료를 통해 이지리드 자료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은 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함께 법원에 가서 소송도 진행하고 직접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이지리드 판결서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법적 용어를 쉽게 알아듣고 법적 절차와 진행 과정, 자신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판결서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 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만든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연구보고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법에 다가갈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보로 부터 배제받는 발달장애인들은 사법제도 내에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판결서를 통해 판결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발달장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공들여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주신것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담당자: 한국피플퍼스트 서울센터, peoplefirstkorea@gmail.com)

별지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입장

탈시설과 자립생활 확대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생활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의 사건사고로 인해 다양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법절차의 결정을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장애인의 인권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판결서는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법접근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다른 사회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의 내용은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판결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도와 적용에 중요한 예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의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에 둔 이지리드 판결서 연구는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별지3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입장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제공에 이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1991년, 대법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쉬운 판결문을 권장하는 등 판결문은 비장애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지리드 판결문 가이드라인은 향후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의 사법 접근권 보장에 발판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지난 2024년, 접근권 관련 국가 배상 사건(2022다289051)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애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법원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담당자: 김광훈 팀장, 010-7343-7980)